

건축계소식 / 75

현상설계 / 84

해외잡지동향 / 96

세무안내 / 102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설계 · 감리제도 정립을 위한 공청회 성료

찬 · 반 격론... 명확한 감리 규정 시급에 공감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께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건축사회는 지난 6월 10일(화) 공청회를 개최해 건축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5월 16일 건축설계 · 감리 건축사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데에서 비롯했다. 발의의원들은 현행 건축법 아래에서는 건축설계를 진행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께 맡을 수 있어 위법 · 부실한 건축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에 설계와 공사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축사업계와 감리업계가 참여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우리 협회 회원들은 물론 학계, 관계 등 여러 분야의 참가자들이 참석, 이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공청회는 최영집 서울건축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토론자로는 김용철(반건축) 박순중(인천시건축사회장) 이필훈(주 · 태두건축) 조충기(간향건축) 주수일(주 · 주수일건축) 회원과 박항섭(경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감리'를 ▲설계를 완성 발전시키는 설계감리 ▲공사의 안전과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는 시공감리 ▲행정적 법적 조사검사영역인 행정감리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리는 설계 업무의 완성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지만 타인의 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조사 검사 등의 행정감리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여러 시 · 도에서 시행중인 특별검사원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최종 1회 검사가 아닌 예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이날 방청객으로 자리한 서상섭 의원의 보좌관 류경재 씨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이러한 입법제안을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 공청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 행사장인 협회 강당에는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승덕(근정건축) 회원이 담당해 온 서울건축사신문 만평 전시회가 펼쳐지기도 했다.



설계 · 감리 건축사 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건축계 핫 이슈인 가운데 서울 건축사회는 공청회를 개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제14회 김수근 문화상 수상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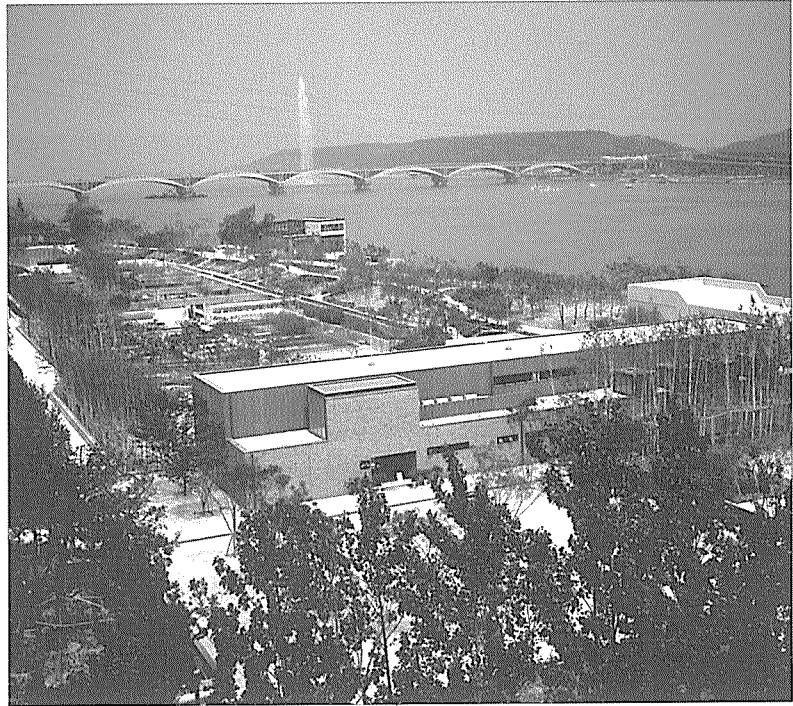
수상작에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 선정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김수근 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이 선정, 발표됐다.

이 상은 건축가이자 공간(종로구 원서동 219)의 설립자인故 김수근 선생의 4주기를 맞이한 1989년에 김수근 문화재단(이사장:윤승중/원도시 건축사무소대표)에 의해 제정되었다. 김수근 건축상은 건축가이면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공간을 축으로 삼아 이땅의 문화 예술의 열매를 맺기위해 열의를 쏟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며, 국내에 많은 시상제도가 있지만, 사회에서의 명확한 위상설정과 그 권위와 흥미가 신선해야 한다는 재단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건축, 미술, 공연예술의 세 분야에 걸쳐 당해년도에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작가의 업적을 평가하여 수상을 하였으나 1997년부터 건축부분만 시행하고 있다.

올해 수상작은 김수근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김준성/himma건축,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이상 4인)와 심사위원회(김광현/서울대,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박길룡/국민대)에서 추천된 5개의 작품(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 철암작업/주대관 외, 무주작업/정기용, 숲이되는마을/조병수, 전통문화학교/민현식)중에서 전통문화학교/민현식,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 이상 2작품이 최종심사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선유도공원/정영선+조성룡'을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선유도공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풍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이며 도시공간의 자연회복에 대한 밝은 희망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21세기 도시환경계획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는 점



선유도 공원전경(사진 / 김재경)

에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원서동 공간사에서 제14회 수상작 시상식 및 제13회 수상자 초청전시회(황일인)개막식이 함께 열렸다.

<역대수상자>

제1회 강석원(건축), 윤희근(미술), 이경숙, 김매자, 임영웅(공연예술/공동수상), 제2회 이원교(건축), 오경환(미술), 베데스다현악4중주단(공연예술), 제3회 민현식(건축), 박영남(미술), 오태석(공연예술), 제4회 승효상(건축), 김호득(미술), 남정호(공연예술), 제5회 우규승(건축), 박정환(미술), 조수미(공연예술), 제6회 이종호+양남철(건축), 박석원(미술), 정치용(공연예술), 제7회 김영섭(건축), 오수환(미술), 이건용(음악), 홍신자(무용), 이승규(연극연출), 유인촌(배우), 제8회故 장세양(건축), 제9회 유결, 제10회 손학식(건축), 제11회 승효상(건축) 제12회 김종규(건축), 제13회 황일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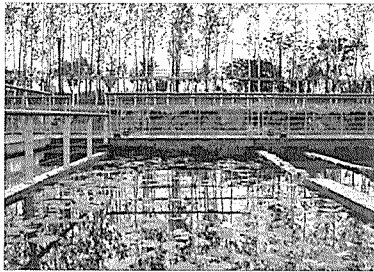
<14회 수상작>

- 프로젝트명 : 선유도 공원
- 건축주 : 서울특별시
- 설계자 : 영선/조경설계서안, 조성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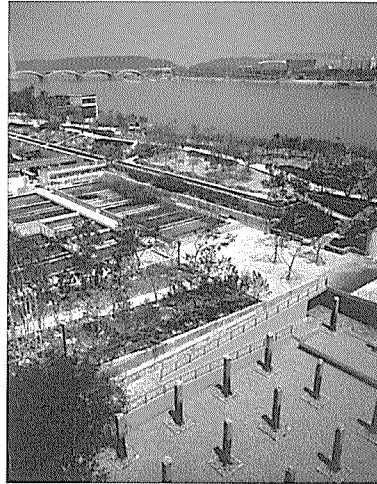
/조성룡도시건축

-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외 64필지
- 주용도 : 공원, 전시시설 및 공원부속 시설
- 대지면적 : 106,378㎡
- 건축면적 : 3,769.70㎡
- 연면적 : 6,968.706㎡
- 규모 : 지상2층 지하1층, 주차=총 52대(육내43대 육외9대)
- 주요마감: 점토벽돌, 적삼목, 아연도 골판, 수지프라스터 뿔칠, 투명유리, 반투명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판, 리버 스톤
- 공원계획 및 설계: 정영선,성종상,박승진,정우건,유승렬,고희정,정태영/조경설계서안
- 건축설계: 조성룡,정상철,김경희,백은정,박창수,류근수,고경호/조성룡 도시건축
- 협력설계: 다산컨설턴트(수리,수문), DN건축/도시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안전진단), 한양전설/한양TEC(전기설비), 이온디자인/뉴라이트(조명), 고도기술사사무소(기계설비)
- 감리: 토팩엔지니어링
- 공사: 봉래종합건설,광진건설,화인종합건설,유성건설,나성토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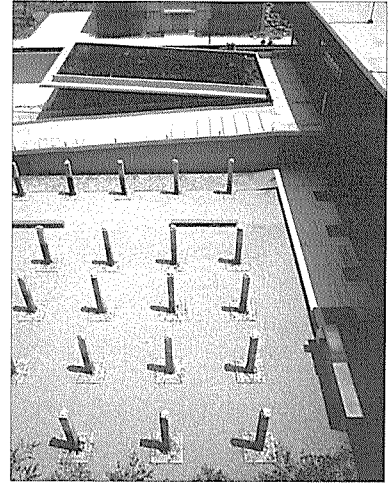
- 전시시설: 금강기획
- 설계기간: 1999. 11-2000. 8
- 공사기간: 2000. 12-2002. 4
- 준공연도: 2002. 4



수생원



정원전경



녹색원

〈심사평〉

2003년도 김수근문화상의 대상 작품을 위하여 2003년 4월 24일, 김수근문화상 전문위원회의 김영준, 김준성, 김중규, 이종호는 다음의 5개 후보 작품을 골랐다. 선유도 공원(정영선 + 조성룡), 철암 작업(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숲이 되는 마을(조병수), 무주 작업(정기용), 전통문화학교(민현식) 등 대상 작품을 두고 김수근문화상 심사위원회 김광현, 김봉렬, 민현식, 박길룡은 2003년 5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철암 작업 / 폐광지역 철암의 도시적 회생을 도모하는 일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주대관, 권문성, 전인호, 임지택, 송재호, 최욱, 한만원, 김기연, 최재희, 김현, 윤희진, 박태홍 등 12인의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이 일구고자 하는 건축문화의 첫발이다. 건축이 지역을 알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지식만이 아니라 그 정서를 체화하는데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건축가의 애정, 전략과 성과가 사회적 역할의 의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건축이 '철암 구하기' 작전과 같이 그 방법설에 우리가 고무되면서도, '이루어짐'으로 보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무주 작업 / 정기용 / 그동안 꾸준하게 건축의 사회 실천에 힘주어 왔던 정기용의 이 프로젝트는 건축으로 사회가 변하고 문화를 변화시킬 기대에 훨씬 다가 있다. 그는 관료주의와 충돌하기보다는 생각을 나누고, 지역의 사랑에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새 지리지地理志'라고 할 만하다. 이 과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마 지속적인 성취의 의미를 위해 더 기다려도 좋을 것이다.

숲이 되는 마을 / 조병수 / 자연과 땅과 작업하

는데 더 익숙한 조병수의 주거 프로젝트들은 향토적이며 동시에 고급 문화의 격조가 유지된다. 그에게서 대지는 구체적인 대상이며 믿음이다. 거기에 대해 건축은 아주 겸손하지만, 자신의 힘을 헛헛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김수근문화상이 갖는 개별적 성질이듯, 새로운 시대개념을 향해 몸짓하다가 생김 혈흔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전통문화학교 / 민현식 / 전통문화 학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대지에 단단히 밀착시킨 작업이다. 건축가가 미리 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선이 느껴지며, 생활 문화의 공간이 된다. 학습 프로그램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따라 흐르는 건축 공간은, 그래서 매우 구조적이다. 높은 건축적 완성도를 보인 이 수작과 선유도 공원의 작업 성과가 마지막 결정 앞에 있게 되었다.

전통문화 학교의 설계자인 심사위원 민현식이 자신 작품의 노미네이트를 고사하였으나, 심사는 민현식을 본심사의 의사결정권에서 제외하고 3사람의 의견이 마지막 결심을 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다수로 '선유도 공원'을 2003년도 김수근문화상의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선유도 공원 / 정영선+조성룡 / 심사위원회의 이 작업에 주목하는 우선의 뜻은 건축과 조경의 경계가 흐림이다. 선유도, 기존의 건물 잔재가 풍부한 대지에서 건축과 조경이 끊임없이 풍경을 만들어 간다. 독립된 오브제로서 건축과 조경이 자신의 영역을 경색시키었던 종래의 개념에 비해, 선유도 작업은 새로운 환경 디자인의 협주協奏法을 시사하여 준다. 건축은 일개운 시간 위에서 다시 자리기 시작하고, 자연은 인공적 요소들과 습윤된다.

심사에서 이러한 작업 경계의 모호성은 그 건축적 성과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하는 뜻으로 반문이 되기도 하였다.

작가들은 수상 공원이며, 시민 공원이며, 역사적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고고학자처럼, 원래를 다시 뒤적이다.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 꽤 많았을 것이다. 그것들은 자연과 시간에 뒤척이던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공원의 작업은 시간의 현상을 일깨운다. 이미 수십년간 서울 시민이 쓴 물의 흔적 위에 다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빛과 바람의 시간이 이 조경을 완성하여 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버릴 뻔하였던 것들에서 가치를 가려내고, 그것이 환기될 방법을 찾으며, 형상으로 재생시키어, 어느 날 우리에게 사실로 되돌려 주었다. 그 일을 건축과 조경이 하는데, 이 선유도 작업을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건축과 조경이 왜 분리되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지난 해 한국 건축의 지적 성향을 다시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였던 이번의 심사과정에서, 건축의 작업이 현저하게 여러 방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번에 대상이 된 작업 중에서도 여럿이 그러하다. 건축이 사회적이라는 뜻은 이전부터 분명하였지만, 이제 건축은 사회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는 쉽게 말하지만, 이처럼 피차의 땀을 섞어 본 경험은 없었다.

종의 다원성은 여럿이 많다는 뜻만으로서 가치가 아니라, 다중 구조에 있음을 아는 것과 거기에 어떻게 결합-반응하는가를 구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박길룡 모아 씀>

황일인 회원, AIA 명예원로 회원 에 추대 오기수 회원, AIA 프레지던셜 메달 수여

지난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에서

황일인(일건건축사사무소)회원이 지난 5월 9일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에서 거행된 미국건축가협회(AIA) 총회에서 AIA 명예원로 회원(Honorary Fellow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FAIA)으로 추대됐다. 황일인회원의 HFAIA 추대는 우리나라에서 고 김수근, 이광노, 원정수, 장석웅, 이경희, 승효상 씨 이후 7번째다. 한편 오기수 회원(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오,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도 같은 날 총회에서 AIA Presidential Medal을 수여 받았다. 이 메달은 외국의 저명한 건축단체장에게 수여되며, 이날 오기수회원은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한국건축단체연합(FKA), 운영(안) 합의

지난 5월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의 각 단체장은 지난 5월 2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토파즈룸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건축단체연합(FKA)은 건축 3단체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각 단체의 고유업무와 독립성을 상호 존중하며, 국내외 건축계의 공동관심사에 대응하는 일원화된 창구의 역할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 내용에 함께 서명했다. 이

로써 규정작성, 대표회장의 교체, 건축교육인증원 설립에 관한 국제세미나 공동 주최 등 3개항을 합의했다. 3단체의 회장이 공동대표가 되며, 그 중 1인이 매년 번갈아 FKA의 대표회장을 맡게 된다. 올해는 대한건축학회의 김진균회장이 대표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2003대한민국 생활디자인 공모

9월 초까지 원서접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2003년 대한민국 생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최측은 작년에 실시되었던 리빙뉴스 21 디자인 공모전을 생활디자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실시하고 이에 따라 명칭도 변경하였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이며, 1차 작품접수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2차 작품접수는 10월 8일까지이다. 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무국 02-508-8037
www.kosid.or.kr

제4회 늘푸른환경조경설계 공모전

「물과 도시환경」 주제로

(재)늘푸른과 (사)한국조경학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늘푸른환경조경설계 공모전이 '물과 도시환경'이라는 주제

로 열린다. 이 공모전은 오늘날 우리의 도시환경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물'과 '물가'의 처리, 혹은 '물'의 도입으로 보대나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의 도입', '물의 활용', '물의 처리'의 세 소주제로 나뉘어 공모된다. 전국의 대학교,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지는 각 부문별로 특정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작품대상의 선정에 따라 임의의 가상공간을 대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응모지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하며, 작품접수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심사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전시회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재)늘푸른 02-561-7766

www.nulpurun.or.kr

'소수장애인' 공모전

7월 5일까지 작품접수

디자인비즈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디자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유아디자이너닷컴(www.urdesigner.com)'을 통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품을 제안하고자 하는 '소수(minority)-장애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디자인비즈가 2003년 한해 동안 진행할 예정인 '소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테마 중 첫 번째 공모전으로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이번 공모전은 제품, 시가, 환경 디자인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며, 당선작 중 제

품화가 가능한 디자인에 관해서는 제품화 과정에 디자이너가 직접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28일까지이며,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7월 10일 심사를 거친 수상작은 7월 15일 발표된다.

문의: 디자인비즈 02-959-1362

성남시민 대상 디자인 공모전

9월초까지 작품접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는 '리빙뉴스 21·성남주부 디자인 공모전'의 행사명을 '리빙뉴스 21·성남시민 디자인 공모전'으로 변경,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올해로 3회를 맞으며, 성남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던 공모전의 대상을 성남시민으로 넓혔다. 작품접수는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받을 예정이며, 전시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리빙뉴스 21·성남

행사사무국 02-3444-2083

www.livingnews21seongnam.co.kr

서울건축학교 2003 여름워크숍 참가자 모집

8월 2일부터 9일까지 새만금에서

1987년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착공되어 이제 10년 이상이 흘렀다. 1996년 시화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갈등 사이에서 이제 방

조제는 전체길이의 4만km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의 서울건축학교의 여름워크숍은 새만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시각을 확인하며 열띤 논의를 갖고자 한다. 워크숍 기간은 8월 2일부터 9일까지이며, 국내외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여름건축학교의 학교장은 김원(광장건축)씨가, 코디네이터는 최문규(기아건축)씨가 맡는다.
문의: www.saschool.or.kr

제5회 건축사진 여름워크숍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건축사진작가회가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2003년 건축사진 워크숍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vs 아날로그'라는 이슈와 함께 사진이론과 건축사진의 실질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빙강사는 미정이며, 건축사진가회 강사로는 김경호, 김재경, 김재윤, 김태오, 문정식, 박영채, 유현민, 이인미, 염승훈, 조명환 씨가 참여한다.

문의: 한국건축사진가회

사무국 02-373-9028

www.archipoto.pe.kr

2003민건협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민족건축인협의회(이하 민건협)에서 2003년 여름캠프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진안군 능길마을에서 개최한다. 민건협은 1996년 제1회 여름캠프를 시작하여 2002년까지 7회의 여름캠프를 운영하였다. 작년 제7회 캠프부터 시작된 '소외된 건축에 대한 담론: 우리시대의 마을 만들기'는 생활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단위가 농촌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에 대한 건축계의 작은 목소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번 여름캠프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는 시골의 마을들을 위해 건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www.mingunhyup.org

2003경향하우징페어 씨머 페스티벌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향하우징페어가 봄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코엑스몰 태평양관에서 '씨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토를 아름답게 삶을 풍요롭게'라는 주제로 건축자재, 건축장비, 가구, 펜션 등의 인테리어와 도로교통, 환경시설 및 조경관련 자재전 등의 비교 전시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알찬 정보의 마당이 될 것이다.

문의: 02-3701-1600
www.ehousingfair.com

제8회 한국목조건축학교 참가자 모집

7월 5일까지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는 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으로 제8회 한국목조건축학교의 일정을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로 확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소는 충남 계룡시 한우리 쉼터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교육과정은 합숙을 통하여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병행하여 2주 동안 경골 목조건축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적인 경량 목구조에 기둥-보 구조 방식을 혼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실습을 할 예정이어서 참가자들에게 보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02-722-3685,
한국목조건축협회 02-554-0611

집 전

가갤러리 개관기념전으로 7월 13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가갤러리는 개관 기념전으로 '집 전'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집이란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이면서 사회와 분리되고 경계지워진 곳이자

사회적 삶으로 나가기 위한 휴식장소이다. 이번 전시는 기정, 세면대, 부엌 등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다루는 작업만을 모은 전시로서 총 15인의 참여작가는 집에 대한 관심을 드로잉, 회화, 영상, 사진, 설치 등의 작업으로 선보인다.

문의: 가갤러리 02-792-8736
www.gagallery.co.kr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벤치 전

7월 4일까지

갤러리 아트사이드와 (주)지엔에이 디자인이 주관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벤치 전'이 여의도공원에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벤치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구분주, 김희경, 도홍록 씨 외 13인의 조각가들이 펼쳐 보이는 다양한 공간해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 안의 숲 여의도공원에서 각기 다른 조형언어를 갖고 있는 벤치를 관람하고 이와 더불어 짧은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문의: 아트사이드 02-725-1020
www.artside.net

오토데스크코리아, CAD 무료체험관 개관

삼성동 코스모타워 지하 1층에

오토데스크코리아(대표 남기환)가 지

난 5월 21일 CAD 사용자들의 고객만족을 위해 자사의 제품 및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관을 삼성동 코스모타워 지하 1층에 개관했다. 개인 및 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모뎀과 교육장, 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춘 체험관에서는 CAD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설 교육장을 마련해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소를 제공해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으며, 고급과정 수강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AutoCAD2004 따라하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558-5465
www.autodesk.co.kr

제4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 작품공모

10월 10일까지

수원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전과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화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작품을 발굴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제4회 수원화성 도시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작품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4대문(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2003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6-7223
www.hwason.org

제2회 부산국제건축공모전

광안리 일대 아이덴티티 주제로

2002년 UIA의 공인을 받아 Busan Tower Complex를 주제로 시작한 부산국제건축 공모전이 2003년 BiArc(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petition)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회째 개최된다.

“ THE CAPTURED OCEAN: Redefining The Busan Urban Water Front”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공모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공모전 운영위원회는 BiArc 2003을 통해 광안대교와 함께 21세기 부산의 문화, 해양도시 이미지를 다시 정의하는 광안리 일대에 관한 도시, 건축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교량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심해수욕장의 모습, 해안과 광안대교와의 관계, 교량의 양극단에 남겨진 모호한 공간들의 활용 등은 이 공모전의 주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창의적 제안들 역시 광안대교를 포함한 광안리 일대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강석원, 류춘수(국내), Hara Hiroshi (Japan), Eric Owen Moss (USA), Coop Himmelblau-Wolf D. Prix (Austria) 씨가 맡는다.

- 질의응답: 2003. 6. 1.~7. 17.
- 신청마감: 2003. 8. 12.
- 작품마감: 2003. 9. 6.
- 참가자격: 건축관련 재학생, 대학원생, 전문건축인
- 문의: 부산국제건축공모전 운영위원회
전화 82-51-759-9496
www.biarc.org,

제2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Celebration of Cities - 도시의 찬미, 도시의 축제

꿈의 도시 브라질 꾸리찌바의 시장으로 알려진 건축가 자이메레르네르는 UIA 회장이 되어 'Celebration of Cities' 라는 주제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전 세계 건축계에 던지고 있다. 건축의 활동은 도시영역으로 확대되어 도시와 건축의 전문가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전 세계 곳곳의 도시에 만들고 실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세계 건축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주제로 2003년 대한민국 건축대전의 일반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도시속에 있는 실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실현 가능한 작품으로 도시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의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창의성이 넘치는 장소로 회복되는 결과가 예측되는 작품이 되어야 한다.

〈초대작가전〉

- 작품접수: 11. 14.

- 접수장소: 예술의 전당

〈일반공모전〉

- 원서접수: 5. 19.~6. 20.

- 1차작품접수: 9. 5. 사무국

- 2차작품접수: 11. 14. 예술의 전당

- 주제: Celebration of Cities - 도시의 찬미, 도시의 축제

- 출품자격: 국내외인(동일작품에 한하여 작가 명의는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원서신청: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

- 심사위원: 강건희, 권문성, 김준성, 박학섭, 장응재, 최재희, 허서구

- 심사발표: 11. 17.

- 전시: 11. 17.~11. 23. 예술의 전당 미술관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02-744-8050) www.kia.or.kr

2003 공간대상

제21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
제3회 스페이스인스타일 국제학생실내건축상

공간사에서 주최하는 공간국제건축상과 국제학생실내건축상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올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는 김준성(M.A.R.U건축)과 크리스 R. 샤프츠(SHoP Partner, New York)가 위촉됐다. 응모신청서는 공간사 홈페이지(www.vmspace.com)에서 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공간국제학생건축상〉

- 주제: 오아시스-혁신적인 박물관 (Innovated Museum)/가상의 황폐한 대지(사막 등) 100m×100m 안에 연건평 1,000㎡내외의 물박물관과 외부 공간계획

- 자격: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적생-전공무관/한 팀 3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 시상: 대상 1점 500만원, 최우수상 1점 30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CG특별상 1점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신청 접수기간: 2003. 4. 7.~8. 11.

- 작품 접수마감: 2003. 9. 15. 오후 5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국제학생실내건축상〉

- 주제: 소호(SOHO)-독립 아틀리에 (Independent Atelier)/창조성, 개인성, 독립성을 확보한 젊은 실내디자이너의 작업 공간 계획

- 자격: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적생-전공무관/한 팀 3인까지 공동작업 가능

- 상: 대상 1점 500만원, 인스타일상 1점 300만원, 우수상 3점 각 100만원, 입선작 다수

- 신청 접수기간: 2003. 4. 7.~8. 11.

- 작품 접수마감: 2003. 9. 15. 오후 5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카자흐스탄 국제 건축 자재 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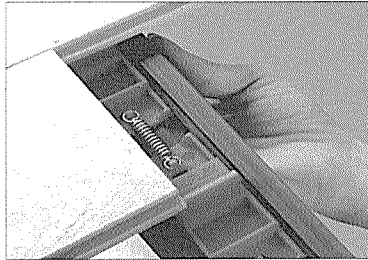
2003년 6월 카자흐스탄 최대의 건축 종합 전문 박람회인 KAZABUILD' 2003 박람회가 개최된다. 국내에서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 여개사가 부스출품 예정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건축 전문 박람회에 해외 산업 박람회 참관단 유치전문 여행사인 코리아나사에서는 참관단 모집을 한다.

- 전시기간: 2003년 9월 3일~9월 6일 : 4일간
- 전시장소: 알마티 ATAKENT 상설 전시장
- 개최규모: 개최국 및 해외 20여개국 200 업체 부스 개설 / 2,000㎡ 전시면적
- 전시품목: 천장재, 바닥재, 창호재, 인테리어제품, 수전금구, 보일러, CCTV, 도어록, 파이프, 피팅, 위생도기, 발전기, 램프, 벽지, 블라인드등 건축자재 전반
- 전시특징: 카자흐스탄 최고의 건축 전문 전시회이며, 국내(한국)에서도 10 여개사 부스 출품 예정.
- 부스관련 문의 : KOTRA 본사 전시사업팀 이재은 대리 전화: 3460-7259 팩스: 3460-7916
- 참관신청 문의 : (주)코리아나투어스 전화: 02-736-4191 팩스: 02-753-8435

신 소 재

레일플렉스(Reiflex)

못, 접착제를 쓰지 않고 마루 설치 가능



건축자재중 마루 공사에 필요한 원목 마루재를 취급하는 (주)애플코퍼레이션은 마루를 시공할 때 못이나 망치, 혹은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마루를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고기능성 마루 시스템인 레일플렉스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제품명은 「레일플렉스(Reiflex)」, 설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용도의 두께 2mm PE Form을 바닥 전체에 깔아준다. 이 PE Form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않게 하고 마루위로 보행 시 보행 충격을 흡수하는 폭신한 쿠션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루구조 하부에 설치되는 기존의 나무 마루를 대신 플라스틱으로 장선을 교체하였고, 플라스틱에 스프링을 넣어 제품에 유연성을 강조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인 이 제품은 목수가 망치와 못으로 마루를 설치해오던 전통적인 시공방법이 매우 번거롭고, 목재의 수축 팽창 등으로 인해 삐걱거리는 등 소리가 나는 단점이 있는 것에 착안, 과거 마루 시공에 있었던 불편한 모든 점을 개선한 '튼 구조'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발과 무릎관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신개념의 마루재이다.

문의: (주)애플코퍼레이션
(02-3445-3388)

경력사원 모집

(주)단 건축사사무소

-모집분야 및 인원

- 설계직 차장 0명
- 과장 0명
- 대리 0명
- 신입 0명
- 공무과장 0명
- 건축설비 0명 (기계/전기)
- 토목설계 0명

-자격요건

- 설계직 : 관련학과 졸업자
- 공무직 : 대관업무 전담
- ※ 인천으로 출퇴근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사진)
- 자기소개서(경력중심)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전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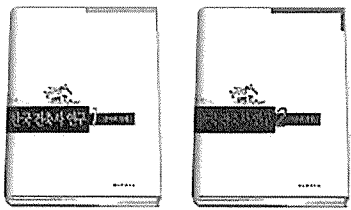
- 1차 서류
- 2차 면접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40-47 (선정빌딩 3층) 설계사업부 앞
- 전화: 032-425-8855
- 팩스: 032-246-8003
- 이메일: dan2000@korea.com

신 간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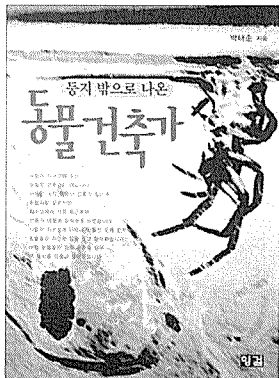
◇한국건축사 연구 I, II



한국건축역사학회는 2001년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한국건축사 및 건축 이론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을 발간했다. 제1권에서는 분야와 시대로서 한국건축사학의 전개, 종교 및 공공건축, 주거, 도시, 근현대건축, 북한 및 외국건축 등 7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2권은 이론과 쟁점이라는 주제 하에 공간의 장론, 구조 기술 및 제도, 문화재 보존과 복원, 근대 이후의 이론과 비평, 이념과 쟁점 등 5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한국건축역사학회 펴냄/ 1권: 27,000원 2권: 20,000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동지 밖으로 나온 동물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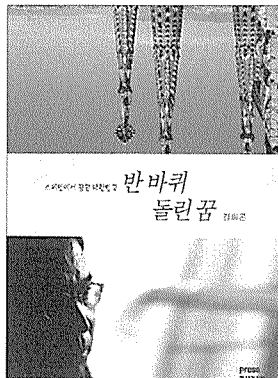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건축가가 아닌 동물학자이며, 삽화는 건축가가 그렸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일반적인 동물들의 집짓기에 대한 이유와 과정과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두 번째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여러 동물이 지은 집의 모양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박태순 지음/유원재(다건축) 삽화/246쪽/1만 2천원/도서출판 잉걸 발행(02-855-3709)

◇스페인에서 꿈꾼 대한민국 반바퀴 돌린꿈



이 책은 건축가 김희곤(홍간건축)이 스페인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돌아서서 시작의 근원을 돌아보면서 여유를 발견하고 꿈을 담아내는 과정을 쓴 글이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우리문화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깔고, 다른 문화를 보고 느끼고 지각되어진 것을 저자 나름의 풍부한 식견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문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보듬어 안고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안착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적 가치를 정립하는 길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김희곤 지음/285쪽/1만1천원/현대건축사 펴냄(02-455-804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3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0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6-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6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2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